

## 2016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월간 리포트 모음

제 출 지 : 폴란드한국문화원  
제 출 자 : 박 정 제

번호	구분	내용
1	현지 동향	[2016년 10월] 문화관련시설 건립, 브로츠와프 Theatre Olympics, 루블린 International Dance Theatre Festival 등
2		[2016년 11월] 2016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폴란드 브로츠와프 선정
3		[2016년 12월] 2016 폴란드 공연예술시장 하반기 동향, 폴란드 내 한국예술가 활동상황, 9th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Divine Comedy 수상내역, 브로츠와프 폴스키 극장 이슈 등
4		[2017년 1월] '우지(Lodz)' 도시재생사업
5		[2017년 2월] 한국 작가 편혜영의 <재와 빨강> 폴란드 '올해의 책' 선정, 2차 세계 대전 약탈 예술품 반환 등
6		[2017년 3월] 37회 Warsaw Theatre Meetings, 17회 Media Art Biennale WRO 2017 : 이병진, 최지원 작가 전시 등
7		[2017년 4월] 7회 Transatlantyk Festival in Lodz의 Capturing Freedom Short Film Contest, New Polish Design 발표 등
8		[2017년 5월] Warsaw National Theatre 제작오페라 <Goplana> International Opera Awards에서 수상, 제24회 Lodz International Ballet Festival, 그 외 폴란드 무용계 동향 등
9	기관 및 단체	Adam Mickiewicz Institute
10		Lubelski Teatr Tanca(Lublin Dance Theatre)
11	공간	Centrum Sztuki FORT Sokolnickiego
12		Nowy Teatr
13		Teatr IMKA
14		Centrum Kultury w Lublinie(Lublin Cultural Center)
15		Centrum Spotkania Kultur (Centre for the Meeting of Cultures in Lublin)
16	인물	Marcin Jacoby
17		Ryszard Kalinowski
18		Joanna Szymajda
19		Barbara Trojanowska
20		Grzegorz Skorupski
21	Zofia Starikiewicz	

I. 현지 동향		
유형	장르	
관련링크		

### \*문화관련시설 건립

폴란드는 현재 EU자금의 유입과 폴란드내의 자국문화예술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관련 시설들을 새롭게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인 바르샤바를 비롯해 크라쿠프, 포즈난, 브로츠와프, 루블린 등 지방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으로는 지방의 경우가 지방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크라쿠프의 크리코테가(Cricoteka), 국립현대미술관인 모작(Mocak), 루블린의 멀티콤포렉스 같은 문화시설인 센터프 스포트카니아 쿨투르(Centrum Spotkania Kultur) 등 최근 혹은 근래에 개관된 문화관련 시설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관련 시설 건립의 또 다른 한가지의 목적은 자국민들을 위함이라고 한다. 그 동안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의 역할, 목적이 자국민들을 위해 운영되기 보다는 폴란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운영하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문화관련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루블린의 경우, 도시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place)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공사중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연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옛것이 자연스럽게 건물에 녹아내릴 수 있는 건축을 시도한다. 현대적이지만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 \*브로츠와프 Theatre Olympics

조금 지난 이야기이지만 하지만, 브로츠와프가 유럽문화의 수도로 지정된 후 현재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공연예술축제인 Theatre Olympics가 브로츠와프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 Theatre Olympics는 1995년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2010년 열린 행사로 17개 국가의 연출가, 극작가 등으로 구성된 Theatre Olympics 국제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연예술제이다. 이 공연예술제는 각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창의력이 뛰어난 새로운 작품들로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브로츠와프 Theatre Olympics 중 메인섹션은 총 16개의 프로덕션 작품들을 4주 동안에 걸쳐 공연된다.

### \*루블린 International Dance Theatre Festival

2016년 20주년을 맞은 Lublin International Dance Theatre Festival은 11월3일~11일까지 루블린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Large scale'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주년 페스티벌 프로그래밍했으며, 20개 프로덕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외, Lublin International Dacne Theatre Festival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페스티벌 프로그래밍의 다양성, 그러니까 공연을 라인업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 해외 무용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술가들과의 협업, 워크숍, 공동제작 등 다양한 방면으로 프로그램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형	장르
관련링크	http://www.wroclaw2016.pl/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은 유럽문화도시라는 명칭으로 1985년 아테네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EU연합 회원국의 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하여, 1년간 예술, 음악, 교육 스포츠 등의 각종 문화행사를 전개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도시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도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된다. 1999년 이래 현재 명칭은 '유럽문화수도'로 변경되었다.

2016년 폴란드의 도시인 브로츠와프(Wroclaw)는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와 역사적인 문화도시인 크라쿠프를 뒤로하고 선정된 점에서 브로츠와프로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EU의 문화수도 선정기준이 문화적 역사와 가치 및 향후행사 계획, 도시기반시설과 재정적 지원 능력을 바탕으로, 그에 덧붙여, 도시의 사회경제학적 발전 및 그 파급효과까지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브로츠와프는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후 도시전체에 이와 관련된 광고물이 설치되었고, 메인 스트리트 시작부분에 메인 사무실(인포메이션)을 오픈하여, 도시홍보와 더불어 1년 동안 진행될 이벤트를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1년 기간 동안 문화예술 이벤트들의 목록과 설명을 볼 수 있는 책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기념품들도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브로츠와프에서 이런 장기간 이벤트들을 기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화공간들일 것이다. 공연장, 미술관 그리고 문화대체공간에서는 2016년 동안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대표적인 이벤트로서는, International Book Day/European Night of Literature, Night Half-Marathon Wroclaw, New Horizon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Theatre Olympics, European Film Awards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어 왔다. 유럽문화수도의 마지막달인 12월의 폐막주간은 100여개가 넘는 이벤트들이 브로츠와프 도시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브로츠와프의 문화예술 이벤트는 활발했다. 문화예술 기관의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문화예술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로츠와프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인해, 관광객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그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유럽문화수도는 마무리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잘 수행한 도시는 문화예술적으로 미래의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이 더 기대되는 도시이다.

유형	문화예술 일반	장르
관련링크		

### \*2016 폴란드 공연예술시장 하반기 동향

2016년, 폴란드의 하반기 공연예술시장은 국내 외에 걸친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겪어 왔다. 그리고, 폴란드 내 다수의 문화예술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venue를 확충했다. 이는, 유럽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의견인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를 채워 넣어야 하는 기획자들의 고충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시설정비에 예산을 쏟다보니, 콘텐츠 제작이나 해외 작품 프로그래밍 예산은 줄어들고, 그에 따른 기획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외의 상황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6년 폴란드 공연예술 장르 중 연극분야는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한국에도 내한했단) Krystian Lupa 작품의 경우 2016년 Avignon Festival에 소개된 후, The Paris Autumn Festival에서도 K. Lupa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세 작품을 페스티벌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선보였으며, 그 외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폴란드의 또 한명의 유명 연출가인 Krzysztof Warlikowski의 경우 파리의 Odeon Theatre의 협업으로 완성된 Phaedra(s)는 유럽의 주요 페스티벌과 미국에서 선보였으며, 그의 또 다른 작품인 The French(Nowy Theatre)의 경우도 유럽과 미국에서 투어를 진행했다. 그 외, Krakow Story Theatre의 예술감독인 Jan Klata, Songs of The Goat Theatre의 Grzegorz Brał와 Grzegorz Jarzyna, Pawel Passini 등 연출가들의 작품들이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시장까지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폴란드 연출가의 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협업도 심심찮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 \*폴란드 내 한국예술가 활동상황

2016년 폴란드 하반기 공연예술시장의 해외활동이 두드러졌다면, 한국 아티스트들의 폴란드 내 공연들도 현지히 눈에 띄고 있다. 특히, 폴란드 내 클래식 콩쿠르 수상자들의 공연들이 눈에 띄는데, 소령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은 상반기, 그리고 헨릭 비에니아프스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공동2위를 차지한 김보소리는 하반기에 각각 바르샤바에서 공연을 가졌다.

클래식 연주자들을 제외하고는 TR Warszawa의 연극 공연 기획프로그램의 일환인 'Soundwork'에 한국 인디 뮤지션인 '정차식'이 공연을 올렸다. TR Warszawa는 바르샤바 내 Nowy Theatre와 더불어 가장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선보이는 곳으로 저명하게 알려져 있다.

### \*9th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Divine Comedy 수상내역

2016년, 9회째를 맞이한 Divine Comedy에서 수상내역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높은 경쟁률과 공연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졌지만, 공연 관계자들은 전체적인 프로그래밍들이 2014년과 15년에 비교해봤을 때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연출가들의 작품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 The best presentation: All about my mother(dir. Michael Borczuch)
- Best director: Wiktor Rubin('Everyone gets it, she believes')
- Best art direction: Barbara Hanicka('Proteges')
- Best creative team: Agata Duda, Lukasz Wojcik
- Best actor: Julius Chrzastowski('Enemy of the people by Jan Klata')
- Best actress: Agnieszka Kwietniewska('Comedian' by Agnieszka Olsten)
- Best supporting actor: Jan Peszek('Proteges' by Paul Miskiewicz)
- Best supporting actress: Renia Goslawska('Kumernis or about how the little lady holy beard grow' by Agata Duda-Gracz)
- The best visual multimedia development: Robert Milk('Robert Robur')

이 외, 젊은 연출가 및 공연예술가들을 배출하기 위한 Paradiso 작품들 중 대상적인 The best performance는 신예 연출가인 Magda Szepecht의 'Schubert. Romantic composition on twelve performers and string quartet'이 차지했다. 이 연출가의 새로운 작품은 내년 10th Divine Comedy에서 프리미어를 가질 예정이다.

### \*Polski Theatre in Wroclaw 이슈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카롤릭 국가이다. 하지만, 폴란드 연극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파격적이고 논란이 되는 현대연극들을 많이 선보이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Wroclaw의 Polski Theatre도 그러한 공연장 중 한 곳이다. 근래에 들어, 이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인 'Princess Dramas: Death and the Maiden'을 토대로 제작한 연극이 보수주의 관객들의 항의집회가 열리고 폴란드 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이 작품은 폴란드 문화부에 의해서 상영금지가 추진 중이다.

두 번째는, 2016년 여름 발표된 새 예술 감독(Cezary Morawski) 임명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폴란드 공연계에 의하면, C.Morawski는 연극계 활동이 전무하며, 예술감독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계 시위가 일어났으며, C.Morawski는 Polski Theatre in Wroclaw의 연기자 11명을 해고하였다. 아직, 상황중요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형	장르
관련링크	

폴란드는 현재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그 반면, 문화 예술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충족이라는 면에서만 바라본다면, 폴란드의 2020년 이후의 문화예술계의 전망은 밝다. 현재까지도 문화예술관련 시설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설립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확충은 폴란드 문화정책의 또 한 모습일 것이며,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의 한 일부일 것이다. 그 중,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우지라는 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간단히 살펴보자.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금 바르샤바의 모습을 보면 10년 전 폴란드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폴란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함은 물론이고, 국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또한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예술계도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폴란드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우지(Lodz)이다. 우지는 바르샤바에서 약 100km 떨어진 도시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약90분 정도 걸리는 곳이다. 이 곳은, 1827년 인구 339명에 불과했으나, 섬유공업이 발달하면서 폴란드왕국의 공업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 후, 섬유산업의 몰락과 함께 바르샤바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많았고, 젊은 인재들도 떠나가면서 뒤는 빈 공장만 남은 폐허가 되었다.

이러한 도시를 일으켜 세운 것은 도시재생사업이었다. 우지시는 21세기에 일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인재유지와 육성을 앞세웠으며, 그와 관련하여 장학금이나 인턴십 프로그램등 시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지시에는 21개 대학교에 9만 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도시 전체인구의 약 7.5%라고 한다.

그리고, 우지시는 낙후된 시설물과 폐허로 남아있는 공장지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기차역인 PKP 우지 파브리츠크를 5066억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재개발했으며, 비어있는 공장들을 개발한 복합 쇼핑몰을 마뉴팩처(Manufaktura)와 화력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EC1이 대표적이다. EC1은 15,000명이 수용가능한 콘서트홀, 국립영화스튜디오, 다목적 컨벤션홀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건물의 전통을 지키고 외관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건물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 외, 도시 곳곳의 호텔이나 상가들도 모두 옛 공장을 개조한 것들이다.

이러한 도시재생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생긴 문화시설에 새로운 콘텐츠를 더하기 시작했고, 우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체들이나 아티스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페스티벌이 생기고, 그에 따른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의 경제 또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우지시에 다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현재 12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지시는 2022년 엑스포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한 도시의 혹은 한국가의 모든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폴란드 문화예술계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며 그에 따른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잘 파악한다면,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유형	문화예술 일반	장르
관련링크		

#### \* 폴란드에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재와 빨강>, 저자 편혜영

한국에는 폴란드의 클래식 음악가인 쇼팽과 더불어 몇몇 작곡가와 연주자들에 의해 음악이 발달한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폴란드 현지를 포함한 해외에서는 문학 또한 많이 알려져 있다. 유명 문학가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선보이는 연극 장르 또한 이 나라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보여주며 대표적인 예술 장르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작가인 편혜영의 <재와 빨강>이 폴란드의 대표적 문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라니차(Granicz.pl)가 실시한 독자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성인도서 부문 '올해의 책'으로 뽑혔다. '올해의 책'은 성인, 아동 도서 두 부문만 발표하며, 성인 부문에서 한국 문학 작품이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아동도서 부문에서는 2012년에 황신미 작가의 '마당엔 나온 암탉'이 선정된 바가 있다.

문학분야, 그러니까 순수예술분야에서 폴란드에서 주목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라는 점은 단순히 문학 장르가 강한 국가에서 상을 받았다는 의미보다는, 폴란드에 동유럽 출판계의 중심 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는 현재 유럽 내에서 강하게 주목 받고 있는 국가이며,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전 또한 기대해 볼만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여, 앞으로는 K-Pop과 더불어 한국 대중문화를 알리는 일차원적인 한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물론이고, 문학, 파인아트, 공연예술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한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예를 찾아보면, 일차원적인 대중문화가 일으키는 유행이나 바람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제는 지적 호기심이 강한 계층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를 전파할 때가 온 것이고, 폴란드에서 한국 예술작품이나 한국 출신의 아티스트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 \* 예술품 반환

2차 세계 대전 기간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약탈한 예술품이 나치 점령군 후손에 의해 폴란드에 반환되었다. 이날 폴란드 측에 반환된 약탈 예술품은 2차 대전 당시 크라쿠프에 있는 포도츠키궁에 소장돼 있던 예술품들로 포도츠키궁을 점령군 사령부로 사용한 독일군 측이 출저한 것들이다. 당시 크라쿠프 지역 점령군 총독으로 부임한 나치 친위대 그루펠러 오토 베르터 장군의 부인이 내부 장식을 이유로 소장 예술품들을 대거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폴란드 측에 반환된 예술품은 포도츠키궁을 그린 그림과 17세기 폴란드 지도, 르네상스 시기 크라쿠프 판화 3점이다. 베르터 총독의 아들인 호르스트 베르터가 반환의사를 밝혀 26일 본래 소유자인 포도츠키가로 돌아갔다.

2차 대전 기간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에 의해 약 50만점이 넘는 예술품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치 점령군의 후손이 약탈한 예술품을 원 소유국에 반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후손들도 약탈, 보관 중인 예술품들을 본래 소유국에 반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폴란드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약탈된 예술품들이 회수되었거나, 반환요청을 진행 중인 한국으로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것 같다. 예술품 반환이라는 점은 단순히 빼앗긴 것을 찾아준다는 의의도 있지만, 한 국가의 예술작품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예술애호가 및 전문가들의 반향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	장르
관련링크	

#### \* 37회 Warsaw Theatre Meetings

2017년 37회째를 맞는 폴란드 연극축제인 Warsaw Theatre Meetings는 폴란드 내에서 제작

된 작품 중 예술성이 높고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3월 30일~4월 11일까지 선별된 작품들을 Dramatyczny Theatre, Studio Theatre 그리고 Powszechny Theatre 등의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바르샤바시와 폴란드 문화부에서 지원한다. 레퍼토리는 메인프로그램과 소극장을 위한 Small Theatre Meetings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올해의 에디션의 개막작은 최근 들어 폴란드 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고 공연을 다룬 Song of the Goat Theatre의 최근작인 Island(Dir.Grzegorz Bral)로 시작하였다. 그의 작품들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 많은데, 크라쿠프에서 열리는 Boska Komedja 2016에서 최고작품상을 수상한 All About My Mother(Dir.Michal Borczuch), 2016년 연극전문가 및 평론가들로부터 가장 주목해야하는 작품으로 선정된 Iwona, Princess of Burgundy(Dir. Grzegorz Jarzyna), Iwona, Princess of Burgundy의 작가인 Witold Gombrowicz의 Wedding(Dir.Anna Augustynowicz) 그리고 2016 Boska Komedja에서 역시 성공적인 공연을 펼친 Proteses(Dir.Pawel Miskiewicz) 등이다. 위 작품들의 연출가들은 현재 폴란드 연극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들이다. 그 외, Harper(Dir.Grzegorz Wisniewski), Point Zero.Gracious(Dir.Janusz Oprynski), Wife of State, Whores Revolution, and May a White-Haired Scientist(Dir.Wiktor Rubin), Triumph of the Will(Dir.Monika Strzepka), Worst Man in the World(Dir.Anna Smolar) 등이 레퍼토리로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의 주목할 점은 여성 연출가의 약진이다. 2010년부터 여성 연출가들의 연극작품들이 폴란드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6년 폴란드 최대 연극축제이자 어워드인 Boska Komedja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여성 연출가인 Anna Augustynowicz, Monika Strzepka, Anna Smolar 등이 이번 Warsaw Theatre Meetings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소극장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미래의 새로운 관객들이 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작품들 위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예술교육 측면에서 작품들이 예술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Small Theatre Meetings의 주된 모토이다. 주목할 만한 레퍼토리는 개막작으로 선보일 Hell-Sky(Dir.Jakub Krofta), 페퍼작인 Tales from the Oblivion(Dir.Duda Paiva)와 Colorful People(Dir.Honorata Mierzejewska-Mikosza), Glass up(Dir.Janusz Ryl-Krystianowski) 등이다.

메인 프로그램 레퍼토리의 티켓은 모두 솔드아웃이 된 상태이며, 추가 공연을 편성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리고, 페스티벌에 초대된 작품들은 다시 폴란드 프렌드들들에 의해서

각 도시에서 초청될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컨텐츠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문화예술 시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17회 Media Art Biennale WRO 2017 : 이별전, 최지원 작가 전시

2017년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Media Art Biennale는 5월17일~6월30일까지 브로츠와프의 WRO Art Center 중심으로 도시 일대에서 벌어진다. WRO Biennale는 뉴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선보이는 폴란드 내 가장 큰 미술행사 중 하나이다. 올해는 Draft Systems이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시, 컨퍼런스, 퍼포먼스 그리고 콘서트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참가자로는 Grinder Man Group, Normichi Hirakawa, Pawel Janicki, Maciej Markowski, Suzanne Treister 등이다. 한국작가로서는 이병진, 최지원 작가가 참여 한다. WRO Biennale의 예술감독인 Piotr Krajewski는 최근 일본 미디어 작가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한국의 수준 높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며 앞으로도 한국 작가들의 작업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유형	장르
관련링크	

#### \* 7회 Transatlantyk Festival in Lodz의 Capturing Freedom Short Film Contest

Lodz(우지)는 바르샤바에서 약 100km 떨어진 도시이며,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약 60분 정도 소요된다. 이곳은 원래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으나, 산업의 몰락과 함께 빈 공장만 남은 폐허가 된 곳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폴란드 내에서 문화예술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지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현재 1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발전되고 있고, 젊은 도시인 우지는 유명한 영화학교를 비롯한 폴란드 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Transatlantyk Festival이 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페스티벌은 최고의 영화학교를 보유한 도시답게 전 세계의 영화와 음악을 보여준다. 올해는 7월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우지 시 도시 내 보유하고 있는 극장과 공연장 그리고 야외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내세워 예정이 있다.

특히, 올해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Marie Curie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페스티벌 측에서는 첫 번째 에디션으로 시행하는 Capturing Freedom Short Film Contest를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Culture.pl과 함께 공동 운영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Freedom - The Power of Woman 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2017년 6월 1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며, 현재 영화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한 18세~35세까지의 연령층에 있으나 국가 제한은 없다. 이번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으로는 Bartek Konopka(영화감독, 심사위원장), Joanna Lapinska (Transatlantyk Festival 프로그램 디렉터), Grzegorz Skorpuk시(아담 미츠키에비츠 영화부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Transatlantyk Festival은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향점과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져가고, 새로운 시도를 외부기관과 협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산문제가 대두되며 프로그램 퀄리티 저하와 규모가 축소되는 타 공연예술 축제와는 달리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변형해가는 좋은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 \* New Polish Design을 알리는 폴란드!

한 국가의 문화예술 혹은 전체적인 문화 동향을 살펴보다보면 현재 어떤 장르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집중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폴란드의 문화예술계를 현재로 살펴보면 과거에 영화, 음악(클래식), 연극 등 장르에 집중을 했다면 현재 파인아트, 언어 그리고 디자인 (리빙디자인, 패션디자인)에 점차적인 지원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이 중, 가장 최근에 투자가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Red Dot Awards와 iF Design Awards에서 많은 폴란드 디자인 수상자들을 배출하였다. Maria Gebzka, Wojciech

Guzik, Konrad Ippohorski-Lenkiewicz, Jan Pfeifer 등 생활용품부터 악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수상하였다.

2017년에는 런던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Fashion Showcase에서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이 런던 패션위크와 공동으로 기획한 폴란드 패션 전시인 Waste Not을 진행할 예정이며, 밀라노에서는 디자인 스쿨에 다니고 있는 폴란드 학생들의 전시를 Milan Design Week 동안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과 우지시에 위치한 Academic Design Center of the Strzeminski Academy가 공동 기획하였다. 한국에서는 2014년 It's a Polish Thing. New Design from Polska라는 슬로건 아래 첫 번째 폴란드 전시회를 진행하였으며, 오는 2017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는 필립 스토어를 동태문 DDP에서 Let's Exhibit!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그 외, 리투아니아, 상 파울로 그리고 런던에서 또 다른 전시회를 예정중이라고 한다.

유형	장르
관련링크	

폴란드는 유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클래식음악, 연극 장르가 많이 알려져 있고, 문화강국의 면모를 이와 같은 장르와 함께 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오페라와 무용 등과 같은 순수예술 장르와 상업뮤지컬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현재 예술장르로 편입한 디자인, 건축 등은 타 장르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 국가에서 디자인과 건축에 관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 오페라와 무용은 각종 어워드와 콩쿠르에서 수상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폴란드 현지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4월 말 벨리나르토프로 디자인을 다뤘는데, 이번 달은 오페라와 무용부분에 관해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Warsaw National Theatre 제작오페라 <Goplana> International Opera Awards에서 수상**

Warsaw National Theatre(이하 "WNT")에서 제작하고 2016년 10월에 프리미어를 가진 Goplana가 2017년도 Internaitonal Opera Awards에서 Rediscovered Work 카테고리에서 정당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하였다. WNT와 후보에 오른 후보들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에서 세 곳(Teatro Regio di Torino, Donozetti Opera Festival, Teatro alla Scala), 오스트리아(Innsbrucker Festwochen der Alten Musik), 독일(Komische Oper) 등 전 세계에서 오페라로 가장 잘 알려진 공연장과 페스티벌들과 경쟁했다.

International Opera Awards는 2012년 영국의 한 오페라 애호가인 사업가인 Harry Hyman이 주축이 되어 클래식 음악 관계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시상식이다. 짧은 역사를 가진 시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 어워드 중 한 곳으로 손꼽힌다. 특히, 오페라라는 특정 장르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위치가 상당히 라고 할 수 있다.

오페라 Goplana는 3막으로 된 오페라로서 Julius Slovak의 비극작품인 Balladyna를 바탕으로 Ludomila Germana가 제작한 리브레토를 바탕으로 Wladyslaw Zelenski가 작곡하였다. 이 작품은 1986년에 크라쿠프에서 프리미어를 가졌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클래식 음악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나, 오페라 시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얼마 전 폴란드 오페라 작품인 King Roger가 영국 Royal Opera House에서 제작되고 유럽을 넘어 북미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폴란드 오페라 작품들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제작한 오페라 프로덕션들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추어 해외 공연장,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있다. 앞으로 폴란드 오페라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제24회 Lodz International Ballet Festival**

Lodz는 바르샤바에서 약100km 떨어진 도시이며, 기차로 약2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 도시는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으나, 산업의 몰락과 함께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도시개발정책에 힘입어 젊은 도시로 재탄생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 공연장이 있다. Lodz Grand Theatre로서 클래식음악과 오페라, 무용 등의 장르를 레퍼토리로 선보이고 있으며, Lodz에서 가장 보수적인 공연장 중 한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연장에서 주최, 주관하고 있는 Lodz International Ballet Festival(이하 "LBF")은 이러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LBF는 폴란드에서 보기 드문 무용페스티벌로서 1968년에 시작된 공연예술축제이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개최된다. 클래식할 한 발레뿐만 아니라 현대무용 레퍼토리로 많이 선보이는 축제로서, 폴란드의 무용계에서 볼 수 없는 라인업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폴란드 무용단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는 Maurice Bejart, Alicia Alonso, John

Neumeier, Jiri Kylian, William Forsythe, Daniel Ezralow, Boris Eifman, Mats Ek, Birgit Cullberg를 초청하여 선보였다.

2017년 24회째를 맞는 페스티벌은 이와 같은 명성을 잊고 있는데, 주요 라인업은 Ballet Bold(English National Ballet), Until the lions(Akrum Khan Company), Debut(Aocsta Danza), Vic's mix(RUBBERBANDance Group) 등이다. 특히, 올해는 영국 British Council과의 협조로 영국작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

**\* 그 외 폴란드 무용계 동향**

폴란드에서 Warsaw National Theatre를 비롯한 각 도시에 있는 National Theatre에 소속되어 있는 무용단 외 개별적으로 운영 활동하고 있는 무용단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서유럽, 북유럽 그리고 북미를 제외한 다른 대륙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지난 4월 Bytom에서 Polish Dance Platform을 개최하여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단들과의 네트워크 확립과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각 단체별 활동계획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폴란드 대표적인 무용단인 Poznan의 Polish Dance Theatre는 유럽의 각종 해외 페스티벌에 초청되었으며,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개발한다. 이는 2017년~19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졌으며, 작품개발과 더불어 Poznan시의 재정지원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운영방안에 관해서 논의되었다.

Polish Dance Theatre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Lublin의 Lublin Dance Theatre도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공연장 상주단체로서 Lublin International Festival도 주관하고 있다. 2017년에는 무용단의 활동과 더불어 페스티벌을 더 크게 키워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해외초청작의 수를 늘리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외, 국립극장에 소속되어 있는 무용단들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작품제작을 하고 있다. Warsaw National Theatre의 발레단의 경우, 현대작품을 더 선보일 예정이며, 해외 무용수들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Adam Mickiewicz Institute		
	유형	정부산하기관	장르	
	운영주체			
	소재지	바르샤바	설립년도	2008년 (2008년 조직재편성)
	공간현황			
	홈페이지	https://iam.pl/en		
	Adam Mickiewicz Institute는 2008년에 설립된 정부산하 폴란드 문화원이며, 2008년 조직재편성으로 현재의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다. Adam Mickiewicz Institute의 주목적은 해외에서 폴란드 문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관 이래 약 26개국에서 4천여 개 이상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2010년 폴란드의 해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였고, 아시아에서는 2010년부터 아시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서 폴란드 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아시아프로젝트는 Polish Cultural Days로 Shanghai World Expo(2010) 참여하였고, Korea Focus(2012)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 중국, 일본을 넘어서 홍콩, 싱가포르			

포르, 미얀마, 인도, 타이완에서도 쇼케이스를 진행하였다.

\* TIP : 2017년도 역시 중국 전역에서 폴란드 관련 문화행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2018년은 일본과의 문화교류의 해로서 국제행사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중이다. 이 기간동안 한국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기관/단체명	Lubelski Teatr Tanca(Lublin Dance Theatre)		
유형	시예술단체	장르	무용/무용극
운영주체			
소재지	Lublin	설립년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ltt.art.pl/		

Lublin Dance Theatre는 2001년 안무가이자 아티스트 디렉터인 Hanna Strzemiecka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Lublin Cultural Center에 상주하고 있다. LDT는 무용단의 정기공연 및 해외공연 추진 외 Lublin International Dance Theatre Festival을 운영하고 있으며, Lublin을 넘어서 폴란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무용단 중 하나로 발돋움하였다. LDT는 폴란드의 Bytom, Krakow, Warsaw, Gdansk, Poznan의 페스티벌 참가 이외 미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독일, 러시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단체와의 공동협업을 준비중이다.

\* TIP : Lublin International Dance Theatre Festival은 2016년 2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19년까지 3개년째 걸친 페스티벌 및 LDT의 해외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정보가 전무한 상태이나, 한국 아티스트와 마켓에 관심이 지대하다.

공간명	Centrum Sztuki FORT Sokolnickiego		
유형	문화공간	장르	복합
운영주체			
소재지	바르샤바	설립년도	
공간현황			
홈페이지	http://nowyfort.pl/nf/		



바르샤바 Zeromskiego 공원에 위치한 멀티 문화공간이다.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전시회, 패션쇼, 파티 등)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메인 홀 이외에 작은 Hall들이 연결되어있는 형태이며, 각각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연속적으로 공연이나 영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풍스러운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 또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특히, 폴란드인들이 좋아하는 장소이며, 현재도 영화제나 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장 갤러리: <http://nowyfort.pl/nf/gallery/>

\* TIP : 공간렌탈의 경우, 건물 전체 렌탈도 가능하나 공간별 렌탈도 가능하므로 행사 목적과 취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공간명	Nowy Teatr		
유형	공연장	장르	복합
운영주체			
소재지	바르샤바	설립년도	
공간현황			
홈페이지	http://www.nowyteatr.org/pl		



연출가 Krzysztof Warlikowski가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연장이며, 폴란드내에서도 가장 컨템퍼러리하고 아방가르드한 작품들로 프로그래밍 된 것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공연장은 메인 극장(가변형)이 있으며, 메인 홀에서도 이벤트를 공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공연장 프로그램은 Nowy Teatr에서 직접 제작한 공연들과 초청공연, 공동초청 방식이나 협업으로 진행되는 공연, 공연장 렌탈(이 사항은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방식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장르의 경우, 연극이 주를 이루지만, 현대무용, 현대음악 레퍼토리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조직의 구성은 예술감독과 총 프로그램 디렉터가 공연 레퍼토리를 선별하고 있고, 이 제작공연에 관련된 프로덕션, PR 팀, 회계, 인터내셔널 투어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 TIP : 공동제작이나 주요 레퍼토리 선별 작업은 시즌별로 진행되지만, 공동초청(공연장+PR 등 제공..논의되는 사항에 따라 다름) 또한 시도해 볼 만하다.

-인터내셔널 투어매니저(Zofia Szymanowska: [zofia.szymanowska@nowyteatr.org](mailto:zofia.szymanowska@nowyteatr.org))  
-관객개발 담당(Paulina Zomer: [paulina.zomer@nowyteatr.org](mailto:paulina.zomer@nowyteatr.org))

공간명	Teatr IMKA		
유형	공연장	장르	연극, 무용
운영주체			
소재지		설립년도	2010년 3월
공간현황	(약 287~300석이 있는) 오티토리움		
홈페이지	http://teatr-imka.pl/		

바르샤바 센터에 위치한 Teatr IMKA는 폴란드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며, 설립한지 5년 정도 된 극장이나 Mikołaj Grabowski, Mai Kleczewska, Krystian Lupa, Monika Strzpek 등과 같은 폴란드 최고의 연출가들의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다. 이에 따라, 폴란드 공연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만약 IMKA에서 공연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일단 공연의 퀄리티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극장의 위치를 제외하고, 외관이나 공연장 내부는 허술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준 높은 공연





을 세우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된다. 프로그램은 IMKA에서 제작되는 연극들과 예술감독이 초청하는 초청작, 그리고 극장을 렌탈하여 공연하는 레퍼토리들로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연장을 렌탈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며 작품에 따라 선별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연극 레퍼토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가끔 무용과 타 장르의 공연도 선보이고 있다.  
\* TIP : 공연장과의 협업을 초청공연을 유지할 수 있을. 공연장 렌탈의 경우, 미리 렌탈 가능한 날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렌탈비의 경우 논의가 가능함. 이 모든 사항은 예술감독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우선 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담당자: Magdalena Prus, [wynajem@teatr-imka.pl](mailto:wynajem@teatr-imka.pl))

공간명	Centrum Kultury w Lublinie(Lublin Cultural Center)		
유형	복합문화공간	장르	
운영주체			
소재지		설립년도	
공간현황			
홈페이지	<a href="http://ck.lublin.pl/">http://ck.lublin.pl/</a>		



Lublin Cultural Center는 공연장, 전시공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Lublin Dance Theatre, Konfrontacje Festival 등의 사무국을 두고 있다. 각 페스티벌의 디렉터, 큐레이터들 중 Lublin Cultural Center의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연장의 주요 장르는 연극, 무용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대적이거나 실험적인 작품을 주고 프로그래밍 한다. 전시의 경우도 현존하는 작가들 위주로 미리 프로그래밍한다고 한다.

\* TIP : 해외작품의 라인업은 주로 페스티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장 연간 사업은 폴란드 작품 위주로 짜여져있다. 우블린 시의 문화도시 연간계획에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원신청에 관련되어, 현재, 폴란드 작품들의 해외 투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신청 및 결정을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지원예산 사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인물명	Ryszard Kalinowski	소속	Lublin Dance Theatre
장르	현대무용	연락처	<a href="mailto:taniec@ck.lublin.pl">taniec@ck.lublin.pl</a>
주요 이력			

Lublin Dance Theatre의 큐레이터로서 LDT의 연간공연기획, Lublin International Dance Theatre Festival 해외초청공연 프로그래밍 작업 및 해외투어, 공동제작 등 LDT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페스티벌과 더불어 워크숍, 레지던스나 같은 아티스트들과의 작업에 관심이 많다. 특히, 한국의 무용수와 무용단에 관한 관심이 크다.

\* TIP: 한국무용 마켓과의 커넥션은 현재까지 없으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페스티벌 라인업 및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단, Lublin Cultural Center의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은 시기를 1년 혹은 2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물명	Joanna Szymajda	소속	Institute of music and dance
장르	무용	연락처	<a href="mailto:joanna.szymajda@imit.org.pl">joanna.szymajda@imit.org.pl</a>
주요 이력			

Institute of Music and Dance는 2010년 10월에 문화부와 National Heritage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설립기본 목적은 폴란드의 음악과 무용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바르샤바에 위치하고 있다.

Joanna Szymajda는 무용분야 디렉터로서 폴란드 내 무용페스티벌과 해외 무용수들의 워크숍, 레지던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는 2017년 4월에 있을 Bytom Polish Dance Showcase에도 관여하고 있다.

\* TIP: 음악부서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무용부서는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지원이 다양하지 않다. 하지만, 폴란드 내 무용분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 진출할려는 무용가 및 단체는 미리 컨택을 해보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된다.

인물명	Barbara Trojanowska	소속	Adam Mickiewicz Institute (Producer/Visual Arts, Project Asia)
장르	Visual Arts	연락처	22 44 76 176 (bTrojanowska@iam.pl)
주요 이력			

Barbara Trojanowska는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내 아시아프로젝트 팀에서 visual arts를 담당하고 있으며, 바르샤바 대학에서 일본학과 학사와 예술사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Barbara의 전문분야는 폴란드 모던, 현대 미술이며, 전쟁 후 일본의 미술에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에서는 2014년 1월에 일사하였으며, 2015년 봄부터 비주얼 아트 프로젝트 팀에서 아시아 시장에 관련된 아트 프로그램, 전시, 워크숍, 심포지엄 그리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업무와

공간명	Centrum Spotkania Kultur (Centre for the Meeting of Cultures in Lublin)		
유형		장르	
운영주체			
소재지	Lublin	설립년도	
공간현황			
홈페이지	<a href="http://www.spotkaniakultur.com/">http://www.spotkaniakultur.com/</a>		



폴란드 내 유럽자금이 들어온 후 생긴 지역 문화공간 중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오페라 하우스 뿐만 아니라 전시도 할 수 있으며,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리허설 공간까지...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실내의 독특한 건축방식으로, 층층별 공연대체 공간과 전시를 할 수 있는 복도, 장소특정형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등 공간을 사용하고 변형하는데 용이하게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인 공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오페라부터 무용, 연극, 대중가수공연 그리고 어린이 공연까지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들로 채워져있고, 전시는 전통적인 회화보다는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교류의 관심이 많아, 방문당시, 중국현대미술작가와 일본전통미술전이 열리고 있었다.

인물명	Marcin Jacoby	소속	Adam Mickiewicz Institute
장르		연락처	+48 600 900 688 (mjacoby@iam.pl)
주요 이력	Adam Mickiewicz Institute 아시아 프로젝트 팀장		



Adam Mickiewicz Institute 아시아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2010년부터 폴란드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들과 행사를 아시아에 소개하는데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 각 지역 페스티벌, 공연장 등지에서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작품과 행사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이 기관이 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2017년 중국의 기관, 페스티벌, 공연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16년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행사가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2018년에는 일본과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되어, 프로젝트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 TIP : 국가차원 혹은 문화기관들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2년의 기

관련된 주요국가는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인도이다.

\* TIP: 바르샤바를 비롯한 폴란드 주요지역의 공공갤러리 및 프라이빗 갤러리와 네트워킹이 상당하며, 주로 일본과의 작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온다. 한국에 관해서는 특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교류사업도 주목한다고 한다.

인물명	Grzegorz Skorupski	소속	Adam Mickiewicz Institute (Film Expert)
장르	Film	연락처	22 44 76 193 (gskorupski@iam.pl)
주요 이력			

2012년부터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Experts Team(각 분야별 프로그래밍 관련 전문가)에서 영화, 영상 부분에 관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다. 순수예술영화와 현재 많이 시도되고 있는 타 장르와의 협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상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에 걸쳐있는 영화제에 폴란드 영화, 감독, 연기자들을 알고 있으며, 해외 영화제와 협업하여 워크숍과 컨퍼런스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 TIP: 한국과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팅을 가지면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화제에 자료가 많지 않으며, 규모가 작은 순수예술영화제나 소재가 특화된 영화제(건축, 음식 등)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 한국 영화관련 아티스트들이 폴란드 영화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인물명	Zofia Starikiewicz	소속	ZAMEK Cultural Center
장르	공연	연락처	+48 607 609 040 (zstarikiewicz@czkamek.pl)
주요 이력			

Z.Starikiewicz는 ZAMEK Cultural Center의 Deputy Director로서 연간 2,500건에 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센터의 모든 사업과 행정을 관리하는 최고책임자 중 한명이다. 각 파트별 책임자들과 연간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폴란드 국내 혹은 국외 초청작품 및 협업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관여한다. 그리고, 포즈난시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의 작업과 지원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많다 라고 한다.

\* TIP: Z.Starikiewicz는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업무에 관해서는 각 큐레이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역할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한국 공연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페스티벌에서 공연 프로그램에 관해 관심이 많으며, 약 2년전 한국 음악단체를 초청하였다고 한다. 현재, 한국과 관련된 교류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게 없다고 한다. 많은 가능성을 가진 공연장이며, 다양한 공연 및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었고, 현재 18~19년 시즌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한다고 한다.

Ⅲ. 기사 아이템 제안		
제안아이템	게재 희망일	
기획의도		
아이템 개요		